새 世紀 生活의 要諦 - 誠

林 泳 暢*

目 次

Ⅰ. 서론(緖論)
Ⅱ. 성(誠)이란 무엇인가
1. 성(誠)의 자의(字義)
2. 성(誠)으로 구성된 숙어(熟語)
3. 성(誠)의 정의(定義)
Ⅲ. 문헌(文獻)으로 보는 성(誠)
1. 중용(中庸)에 나타난 성(誠)
2. 맹자(孟子)에 나타난 성(誠)
3. 대학(大學)에 나타난 성(誠)
4. 다른 문헌(文獻)들에서
5. 타종교 경전(經典)에서 보는 성(誠)
Ⅳ. 대순사상(大巡思想)의 성(誠)
1. 전경(典經)의 교법에서 보는 성(誠)
2. 간추린 대순사상의 성(誠)
Ⅴ. 역사상 인물(人物)에게서 보는 성(誠)
1.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성(誠)
2. 곽망우당(郭忘憂堂)의 성(誠)
3. 백범(白凡) 김구(金九)의 성(誠)
4. 아브라함 링컨의 성(誠)
Ⅵ. 21세기(世紀)와 성사상(誠思想)
1. 만물의 근본인 성(誠)
2. 인격완성의 요체(要諦)
3. 가정생활의 요소(要素)
4. 사회안정의 실천방안(實踐方案)
5. 국가발전의 지표(指標)
6. 신세계 건설의 진리(眞理)
Ⅶ. 결론(結論)

Ⅰ. 서론(緖論)

대순진리회의 교리가 종지(宗旨)와 신조(信條),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순진리회 요람에 나와 있는 교리개요(敎理槪要)를 먼저 들어본다.

---

* 前 경남대 교수, 종교학 박사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여 성·경·신의 3법언으로 수도의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안신·2율령(律令)으로 수행의 훈전(訓典)을 삼아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 건설을 이룩한다.

이상에 소개한 예문(例文)은 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해설을 겸한 개요일 뿐이고 도주 조정산이 공포한 종지·신조·목적의 공식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요람의 六·七·八항 순서대로 재등재(再登載)하고 있다.

종지 :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
신조 : 4강령 - 안심·안신·경천·수도
3요체 - 성(誠)·경(敬)·신(信)
목적 : 무자기(無自欺) - 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 - 세계개벽 1)

이 가운데 종지와 신조의 4강령은 기간(旣刊) 논총(論叢)에 특집으로 연재되었고 본집부터 신조의 3요체를 논할 차례가 되었다.

이 세가지 중요한 항목을 교리의 3요체라고 해서 고유명사를 붙인 만큼 4강령이 신행(信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 3요체는 바로 그 방향제시의 핵심적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요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 3요체의 성·경·신이 동양전체 또 한국에서의 정신문화에 어떤 위상을 지닌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성·경·신 3요체의 이 덕목들은 동양의 종교사상이나 실천철학으로서의 윤리를 구성하는데 가위 기초적 기반이 되는 동시에 이 3자(三者)가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 항목씩 개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기에 그런 뜻에서 서론을 기술해 가기로 한다.

유교의 4대경전인 4서(四書)의 하나로서 중용(中庸)이 있고 그 중용의 주제(主題)가 되고 주체(主體)가 되는 사상은 성(誠)이 경(敬)과 함께 천인합일

1)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발췌, 교무부 발행

(天人合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이른바 성학(聖學)의 근본이 된다.

여기에 첨가되는 것이 신(信)인데 이것을 극명(克明)한 논리의 전개를 가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설이 있다. 율곡은 논어에서 말한 신(信)은 중용에서 말한 성(誠)과 그 뜻이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2)]

다시 말하면 성(誠)과 경(敬)은 합해서 합일(合一)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유교의 이상인 그 성과 경은 곧 신(信)과 동질성(同質性)을 지닌다고 하는 이론이 되니 성과 경·신의 3자의 합일사상이 성학(聖學)인 유교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족종교의 하나인 천도교에서는 수운(水雲)이 동경대전(東京大典)에서

> 우리 도는 넓으나 요약된 것이다. 많은 말의 뜻을 사용하지 않고 별다른 도리가 없으니 성과 경과 신의 세가지니라.[3)]

하여 도인들의 좌우명(座右銘)으로 삼게 하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좌잠(座箴)이라고 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좌우명이나 계잠(戒箴)의 성격 뿐만 아니라 천도교에서는 교의의 도덕관(道德觀)에서 수심정기(守心正氣)란 말과 함께 윤리도덕과 신앙 수행의 주요한 교리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하여왔다.

그것을 대순사상에서는 종지의 다음으로 수도생활의 요체가 되는 법언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성·경·신의 3요체가 종교수행의 요체, 요리(要理)가 되기 때문이다.

종교사상 윤리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성·경·신의 3요체는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야 할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니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에 더욱 소요(所要)되는 덕목인 것이다.

성(誠)의 경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성실(誠實)하여야 하고 무슨 사물에든지 정성(精誠)을 다하며 국가에 충성(忠誠)하고 어버이에게 효성(孝誠)한다는 것이 오늘에 얼마나 소중한 인간의 행위가 아닐 것인가.

---

2) 이 이(1526~1584) 조선 중기의 대학자, 栗谷全書에 誠敬合一論이 있음
3) 東經大典 座箴

경(敬) 또한 성과 함께하며 나아가 동질성으로 볼 수 있는 덕목인 것이니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경건(敬虔)하게 하는 동시에 부모와 장상(長上)을 공경(恭敬)하며 사회적으로 경순(敬順) 존경(尊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오늘의 인간생활에 얼마나 소중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더욱이 경천(敬天)의 숭경(崇敬)은 3요체에 앞서 4강령에도 나와 있어서 종교 수행, 수도에 필수(必修) 불가결(不可缺)의 요체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신(信)에 대해서는 종교상으로는 더 논의할 것도 없이 종교의 당위성(當爲性)을 지닌 행위가 신(信) 곧 신심(信心)이다.

더구나 율곡의 설대로 성·경이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도달하는 근원이 되는 동시에 신(信)이 성(誠)과 동질성의 작용이라고 본다면 이 성·경·신을 별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셋이 곧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분리해서 본고(本稿)에서는 우선 성(誠)의 부분부터 고구하려 하는 바이다.

Ⅱ. 성(誠)이란 무엇인가

1. 성(誠)의 자의(字義)

誠이란 글자는 言변(扁)에 成자를 보탠(旁) 것으로 변(扁)의 言자는 글자의 뜻을 나타내고 방(旁)의 成자는 글자의 음(音)을 나타내고 있다.

강희자전(康熙字典)이 표시한 誠자의 뜻은 다음과 같다.

敬也　(공경하는 것)
純也　(순수한 것, 잡된 것이 끼지 않음)
無僞也　(거짓이 없는 것)
眞實也　(참된 것) 4)

후세에 한국에서 펴낸 한자대전(漢字大典)에는 우리말을 주로 해서 다음

4) 한국에서 발행한 자전에는 信과 敬이 앞에 있으나 강희자전에는 信이 없고 敬·純·無僞·眞實로 풀이해있다.

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미쁠 성 (信也)
공경 성 (敬也)
살필 성 (察也)
정성 성 (精誠·純 - 無僞)

일본의 한화대자전(漢和大字典)을 참고로 소개하면 또 다음과 같다.

まこと (마꼬도 : 말과 행실의 거짓이 없는 것, 공평무사(無私)하여 순일(純一)한 것, 참마음, 赤心)
まことにす (마꼬도니수 : 참되게 하는 것, 誠之)
まことに (실로, 참으로, 거짓없이, 만약, 과연)[5]

말씀 言변에 이룰 成을 붙였다고 해서 파자(破字)를 해서 말대로 성취하는 것이 성(誠)이다 하는 재담(才談) 같은 대답을 하는 이도 있지마는 이렇게 자전(字典)의 해석을 나열해봐도 성(誠)의 개념이 그냥 머리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리만큼 사실 개념파악이 확연하게 되지않는 것에 동양사상 내지 동양의 학문 전체의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증명하듯이 한국의 자전이 보이는 바와 같이 성이란 미쁜(信) 것이다, 공경하는(敬) 것이다, 하게 되면 성·경·신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한 것 뿐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쉽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선현(先賢) 선철(先哲)들이 이런 하나의 사상(事象) 때문에 많은 정력을 소비하고 수없이 논의(論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니 우리 후세의 사람이 허술히 생각할 수만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의 자의(字義)와 어의(語義)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성(誠)으로 구성된 숙어(熟語)

성(誠)자로 구성된 많은 어휘(語彙)가 있다. 이것을 살펴보아 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의(定義)를 얻을 것이다.

---

5) 詳解漢和大辭典 富山房 중국과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간략하게 해석해 있다.

1) 성이 위에 있는 단어

성심(誠心) : 정성스러운 마음, 참마음
성충(誠忠) : 정성스럽게 바치는 충성
성절(誠切) : 정성이 있고 친절함
성직(誠直) : 참되고 올곧음
성신(誠信) : 참되어 미쁨
성정(誠情) : 진정(眞正)과 같음
성경(誠敬) : 참마음의 공경
성의(誠意) : 정성스러운 마음
성심(誠心) : 〃
성실(誠實) : 참마음으로 거짓이 없음
성근(誠勤) : 성실하고 근면함
성일(誠一) : 참된 마음이 오롯함

2) 성이 아래 있는 단어

정성(精誠) : 정밀하게 간추린 참마음
지성(至誠) : 지극한 정성
충성(忠誠) : 충의(忠義)의 정성
단성(丹誠) : 붉은 마음의 정성
적성(赤誠) : 붉은 정성
충성(忠誠) : 마음속으로의 정성
촌성(寸誠) : 적은 정성
간성(懇誠) : 간절한 정성
관성(款誠) : 참다운 정성
(이상 어휘 밖에도 더 많은 어휘가 있지마는 이상과 같이 간추렸다.)

이상에서 보는 바로 성(誠)은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참된 마음'이라고 그 정의를 규정할 수 있으니 종교의 신불신(信不信)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정신생활과 현실생활에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요체 중 요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성(誠)의 정의(定義)

위에서 성의 글자 뜻(字義)도 알아보고 성어(成語)가 된 어휘들도 조사해 보았다. 이제 그러한 기초 연구로서 막연한 개념은 떠오르겠지만 성이 무엇이냐하는 정의(定義)를 추출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순진리회가 펴낸 요람(要覽)에 실려있는 이의 해설을 찾아 보기로 한다.

> 성(誠)
> …전략, 마음은 일신을 극관하여 전체를 통솔 이용하느니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잊게 하는 것이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쉼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6]

이 해설문의 주지(主旨)는 마음을 먼저 말하고 그 마음이 성 곧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 성을 끊임, 틈, 쉼없이 하되 스스로의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이란 마음의 한 작용인 정성스러움인데 그것이 끊임없이 쉼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해설문만으로 평이하게 또 본질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소개한 사서류의 해석에서 다시 한번 상밀(詳密)하게 찾아보려 하는 것이다.

1) 공경하는 마음

공경의 경(敬)은 다음 3요체의 경을 고찰할 때 더 상론(詳論)하겠지만 이 경(敬)자의 자의(字義)를 알아본다.

> 敬 : 恒自肅也 (항상 스스로 삼가는 것)
> 恭也 (공손한 것)

---

6) 대순진리회 요람 3요체 p.16, 대순진리회 교무부

항상 자신을 삼가이 하고 남에게 공경 존대하는 뜻으로 해석이니 먼저 스스로를 삼가는 君子愼其獨(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하는 정신이 앞서야 하는 것이니 정산(鼎山)이 교의의 목적에서 가르친 無自欺(스스로 속임이 없다)라는 정신과도 같은 것이다.

남에게 공손하게 공경한다는 것을 극명(克明)하게 나타낸 것은 민족종교인 천도교에서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이라고 하여 경(敬)의 정신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아무튼 경(敬)의 뜻은 경건(敬虔)과 공경(恭敬)으로 말할 수 있으니 성(誠)이란 말 속에 먼저 이 두가지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2) 진실한 마음

자전(字典)에서 보이는 순박하다(純也), 거짓이 없다(無僞也), 참되다(眞實也)고 한 것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뜻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여 진실한 마음 하나를 들어둔다.

진실한 마음 곧 참된 마음이란 잡된 것이 끼지 [挾雜] 않고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이다.

인간의 근본 성품을 선(善)하다고 보는 성선설(性善說)이 있는가 하면 악하다고 보는 성악(性惡說)도 있고 그 어느 한가지가 아니고 둘이 함께 있다는 2원론(二元論)이 있으며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조작(造作)일 뿐으로 착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선악불이(善惡不二)를 말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철(賢哲)이 주장한 말로서의 표현일 뿐이고 성(誠)이란 말은 거짓없이 바르고 참되어 스스로 근신하는 가운데 공손하게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

3) 한결같이 오롯한 마음 [一心]

다음 한결같은 마음을 들고 싶다. 이것은 대순진리회 요람에 나와있는 끊임없이 조밀하여 틈(隙)과 쉼(休)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두려운(恐肅) 마음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이 글이 인쇄되어 나왔을 때는 남북합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연초공장에서 제조한 '한마음' 담배가 시중에 보급되어 있겠지만 인간만사에 한마음의 일심(一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으니 그런 정신을 고조해서 분단 조국을 통합하자는 민족의 염원이 담배 이름까지 이렇게 명명한 것이기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김치 깍두기 한조각에도 어머니의 정성된 마음이 들어 있어서 맛이 난다고 하고 꽃 한포기 키우는데도 정성을 들인 꽃이 더 크게 핀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쉼없고 곁눈 파는 틈없는 불휴부단(不休不斷)의 수도공부가 종교생활에 필요한 것이니 도통진경(道通眞境)을 갈구하는 종교 도인의 수행요체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이 세가지를 가지고 성(誠)의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성(誠)이란 인간의 마음과 성품(心性) 가운데 스스로 근숙(謹肅)하고 공경하며 거짓없이 바르고 참된 뜻을 지녀서 생각하고 행동하되 한결같은 마음(一心)으로 하는 것이다.[7]

이것이 완전한 정의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다만 자의(字義) 풀이로나 알면 그래도 행심(幸甚)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어것은 다만 성(誠)의 유추(類推:analogy)를 통한 개념(槪念:concept)을 얻고 그 개념에서 추출되는 것이 정의(定義:depinition)로 한 것인데 비록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이것이 글자 그대로 결정적인 의의는 아닐 것이니 어떤 사물이든 관점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견으로 말해두는 것뿐이다.

---

7) 대순진리회 요람에 一心을 성의 행위로 규정해 있는 것을 引用했다.

Ⅲ. 문헌으로 보는 성(誠)

1. 중용(中庸)에 나타난 성(誠)

성(誠)에 대한 최고의 문헌은 유교 4서중의 하나인 중용(中庸)이다.

> 順乎親有道 反諸身不誠 不順乎親矣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乎身矣 誠者天之道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聖人也 誠者擇善而固執之者也 (어버이에게 순종하는데 도(道)가 있으니 몸을 돌이켜 정성되지 않으면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몸을 정성되게 하는데 도가 있으니 선(善)에 밝지 않으면 몸이 정성되지 않다. 성(誠)은 하늘의 도요, 성(誠)되이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성이란 힘쓰지 않아도 적중(適中)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으니 저절로 도에 적중하는 성인이다. 정성되이 행하는 것은 선을 택하여 굳게 잡는 것이다.[8])

중용에서 중요한 구절을 고르면 이 대목이 아닐까 하는 것은 誠者天之道 誠之者人之道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구(語句) 때문이다.

먼저 여기서 부모에게 공경 순종하는 도가 성(誠)이란 것을 말한 다음 선(善)을 밝혀야만 몸이 성(誠)해진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만한 일이 선하다는 것은 성품의 개념인 반면 성은 성품의 작용으로 설한 것이다. 그러니 끝에서도 정성이란 선을 굳이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선한 것이 내재(內在)해서 선행될 때 성이 수행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해 있다.

그러나 성(誠)이란 노력하지 않아도 도(道)에 적중(適中=중심에 맞아 떨어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여 있다.

성(誠)이 이렇게까지 뻗어나서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여 성 그 자체를 하늘의 도(天道)라고까지 표현한다. 또 그에 따라서 誠자에 之자를 가한 동사(動詞)에는 사람의 도(人道)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화휴제(閑話休題). 필자의 집 가훈(家訓)이 誠者天之道 誠之者人之道라는 이 구절이라서 어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마음에 새기고 성실되게 인도로서 살려고 하여도 기껏 오늘의 나인 것 뿐이라서 한심하다.)

위에 소개한 중용 가운데 예문은 공부자(孔夫子)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성

8) 中庸 제20장

을 천도(天道)로 인도(人道)로 가르치신 그 진의(眞意)를 자사(子思)가 추명(推明)하는 말들을 듣기로 한다.

중용의 20장에 계속되는 21장부터가 자사(子思)의 말씀인데 그 중요한 대목을 찾아본다.

> 自誠明謂性 自明誠謂之敎 誠明明矣 明則誠矣(성(誠)으로부터 밝은 것을 성(性)이라 하니 밝음으로부터 성(誠)이 되는 것을 교(敎)라고 한다. 성(誠)하면 밝은 것이고 밝은 것은 성(誠)이다.[9]

여기서 자사(子思)는 성(性)과 성(誠)과 교(敎)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성(誠)에서부터 밝게 된 것을 성(性)이라 한다.
- 명(明)에서부터 얻은 성(誠)을 교(敎)라 한다.
- 성(誠)이 밝은 것 그것이 명(明)이니 밝은 것이 곧 성(誠)이다.

이렇게 간추려봐도 말은 수수께끼처럼 어렵다. 간단히 말하면 성(誠)은 인간의 성(性)에 있는 것으로 그 성(誠)의 표현으로 성(性)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성(誠)을 밝히는 것을 교(敎)라고 한다. 그러고보면 그 가르침을 밝히는 것을 곧 성(誠)이라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아무튼 성(性)이란 마음(心)이나 정성보다도 선행되는 인간의 정신면의 주인이 되는 존재니 그것을 중용 제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 (하늘의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性)을 거느리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10]

이것은 도(道)와 교(敎)를 구별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인데 여기서 맨먼저 성(性)을 정의내려 천명지(天命之) 곧 하늘이 명한 것이라고 한 것이 동양사상 성(性)을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명제가 된다. 그래서 이 논법대로라면 인간의 성품이란 천명이고 그 천명인 성품의 작용중에 성(誠)이란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 바 그 성(誠)을 밝게 하는 것 그 밝게 하는 것이 성(誠)이

9) 中庸 제21장, 子思는 공자의 손자며 曾子의 제자
10) 中庸 제1장

라고 해서 성(誠)과 명(明)과 교(敎)가 인과의 관계 속에 곧 하나인 것도 알 수 있다.

다음 중용에서 위의 21장 이하 자사(子思)의 말 가운데서 성(誠) 또는 지성(至誠)에 관계된 문구(文句)의 중요한 대목을 예문으로 간추려 본다.

>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 (다만 천하의 지성(至誠)이 그 성(性)을 능히 다한다고 하면 능히 사람의 성을 다한 것이다.)[11]

> 至誠之道 可以前知國家將興 必有禎祥 國家將亡 必有妖孼
> (지성의 도는 가히 써 미리 아는 것이 있다. 국가가 흥하려함에 반드시 상서(祥瑞)로움이 있고 국가가 망하려 함에 반드시 재앙이 있는 것임을…)[12]

> 誠者自成也 而道自道也 誠者物知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
> (성은 스스로 이루어지며 도(道)도 스스로 도인 것이다. 성이 사물의 시작이요 끝이니 성이 아니고는 사물도 없다. 이 때문에 군자가 성하게 하는 것을 귀하게 안다.)

> 至誠無息(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13]

위에 나타난 중용의 예문을 보면 성(誠)의 본질적인 정의(定義)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효용(效用) 또는 성의 값어치, 그리고 성을 지닌 생활의 태도를 고조하고 있다고 보아서 큰 잘못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간추려 보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 지성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천명을 받은 성품을 극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 지성의 도는 국가 미래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지력(叡智力)이 있어서 조심할 줄 아는 것이다.

· 성이란 것이 인위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품 속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道)와 같아서 모든 사물에 정성이 깃들여야 이룰 수 있으니 그만큼 군자에게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이다.

---

11) 中庸 제22장
12) 中庸 제 24장
13) 中庸 제25장

· 그러니 지성은 간단없고 휴식없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먼저 소개한 몇 개 항목과 함께 성(誠)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여건들이라고 생각한다.

2. 맹자(孟子)에 나타난 성(誠)

맹자의 이루(離婁)장 상(上)에 성은 하늘의 길(誠者天之道)이라는 중용의 말과 같이 성을 역설한 대목이 나타난다.

> 孟子曰 居下位而不獲於上 民不可得而治也 獲於上有道 不信於友 弗獲於上矣 信於友有道 事親弗悅 弗於信於友矣 悅親有道 反身不誠 不悅於親矣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其身矣 是故誠者天之道也 思誠者人之道也 至誠而不動者 未之有也 不誠未有能動者也
> (하위(下位)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다스릴 수 없다. 윗사람에게 인정받는데 길이 있으니 친구에게 불신(不信)을 받으면 위에 인정받지 못한다. 친구에게 신임을 받는데 길이 있으니 어버이를 섬김에 기쁨을 받지 못하면 친구에게 믿음을 얻지 못한다. 어버이에게 기쁨을 얻는데 길이 있으니 반신(反身)으로 정성되지 않으면 어버이가 기뻐하지 않는다. 몸을 정성되이 함에 길이 있으니 선(善)을 밝게 하지 않으면 그 몸이 정성되지 않는다. 때문에 성(誠)은 하늘의 길이요 정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니 지성으로 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있지 않고 정성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일도 있지 않다.[14]

맹자의 문장은 한만체(冗慢體)로서 3단논법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좀 지리한 느낌이 있지마는 따져보면 단순한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친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하고 또 그 부모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곧 정성 誠자의 성인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중용의 성자천지도(誠者天之道)의 교훈이 인용되는데 중용의 성지자(誠之者)가 사성자(思誠者)로 되어 있지만 그 뜻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런데 이 원문에 반신(反身)이란 말과 성신(誠身)으로 말해서 고대의 성에 대한 관념이 인간의 성(性)에서 나와서 신(身) 곧 몸에 작용한다고 보는

14) 맹자 離婁章 上

것을 구별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 맹자에 나와있는 성에 대한 이론도 성(誠)이 하늘과 사람의 길이란 대명제에 접속시켰지만 그 본질에 대한 해설은 없고 그 작용의 효용에 치중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대학(大學)에 나타난 성(誠)

역시 4서의 하나인 대학(大學)에서 가르친 성(誠)에 대한 것을 찾아본다.

>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行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後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 (예전의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집을 정제(整齊)하고 그 집을 정제하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몸을 닦으며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며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뜻(意)을 정성(誠)되게 한다.…뜻이 정성되면 뒤에 마음이 발라(正)지고 마음이 바르게 되면 몸이 닦이어지고 몸이 닦이면 집이 정제되고 집이 정제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뒤에 천하가 평안해진다.)[15]

> 康誥曰 如保赤子 心誠求之 雖不中不遠矣
> (강호(康誥)[16]에 말하기를 어린 아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으니 마음에 정성스럽게 구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멀지않다.)[17]

대학은 내용이 얼마 안되는 분량의 책이지만 4서의 맨앞에 넣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다.

대학의 도는 명덕(明德)을 밝히고 백성을 화친하게 하며(주자(朱子)는 이것을 백성을 새롭게 한다(新民)고 주석하였으나 원자의(原字義)대로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선(至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데 있다고 전(傳)의 첫장에 기재해 있다.

그리하여 몸을 수양하고 가정을 정제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

15) 大學 傳1장
16) 강호 3經 書經의 1편
17) 大學 傳9장

안하게(修身齊家治國平天下)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테마가 된다.

그런 단계적 본말(本末)관계의 인과를 비교적 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글인 바 이의 시발(始發)적 인(因)을 뜻(意)에 두고 이의 방법론으로 성(誠)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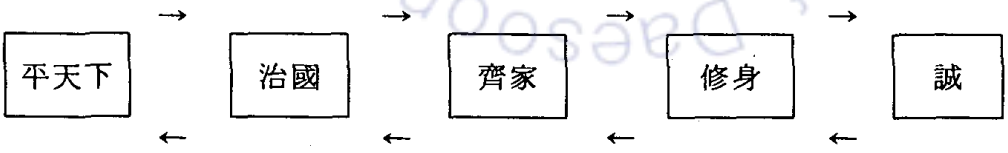
이것을 다시 간추려 말하면

첫째 명덕(明德)을 밝힌다는 대학 강목(綱目)의 첫째를 설명하면서 그 명덕을 밝히는 핵심적 요체가 성(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명덕을 밝히는 길이란 먼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집을 잘 치리(治理)해야 하고 그에 앞서 자기 몸을, 몸에 앞서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 바른 마음이란 곧 뜻(意)이 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또 반대로 말해서 뜻이 정성되면 마음이 발라지고 마음이 발라지면 몸이 닦여지고 몸을 닦은 후 가정이 정제(整齊)되고 따라서 나를 잘 다스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평화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명덕을 밝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까지의 과정을 질서 정연하게 가르친 것인데 이것을 도표로 하면 다음과 같다.

〈平天下와 誠〉



4. 다른 문헌들에서

다음 주역(周易)에서 찾아본다. 인의(仁義) 선악(善惡) 덕(德)이나 업(業)과 같은 말은 많이 등장하지만 성(誠)은 문언전(文言傳) 한군데 밖에 나오지 않는다.

君子進德修業 忠信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幾也

(군자는 덕(德)에 나아가 업(業)을 닦는다. 충신(忠信)은 덕에 나아가는

> 원인이다. 말을 닦아서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선업(善業)을 하기 때문이다. 지극한 것을 알고 이것에 이르면 함께 그 뜻을 알 것이다.)[18]

말하자면 충·신(忠·信)을 고조한 것이니 덕업(德業)에 나아가게 되는 소이(所以)인바 말을 다듬어서 정성을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동양의 모든 덕목이 많은 글자만큼이나 많고 또 글자 2자씩 조합으로 이루는 복합명사까지의 많은 어휘개념을 서구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의 우리 2세들이 전통적인 것은 배우질 못했으니 이런 문장의 뜻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 딱할 뿐이다.

여기 주역 말고도 논어에서는 성(誠)이 없는 반면에 충(忠)과 신(信)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율곡 이이(李珥)는 논어의 충과 신이 중용의 성(誠)과 그 뜻이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이 있지마는 위에서 필자가 말한대로 한자 비슷한 개념의 글자가 너무 글자 풀이의 훈고학(訓詁學)적 해석으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성의 본질을 논한 것이 아니기에 더 언급을 피한다.

그러나 성실이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증산의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느끼게 한다. 아무튼 성(誠)이 없으면 사물(事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장적 표현이기는 해도 수긍되는 것이다.

중국 송대(宋代)의 주자(朱子) 곧 주희(朱熹)의 주장을 들어본다.

> 천도(天道)의 성(誠)은 진실무망(眞實無妄)하니 이것이 천리(天理)의 본연(本然)이다. 인간이 성지(誠之)한다는 것은 인간이 진실무망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무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19]

성(誠)의 글자 뜻에 무위(無僞) 진실(眞實)이 있는 만큼 그것을 적용(適用)하여 하늘의 도(天之道)라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논리다. 그러니 성지(誠之) 또는 사성(思誠)이 사람의 길(人之道)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반신이성(反身而誠) 또한 성지(誠之)와 같다느니 자성기(自成己)와 성물(成物)에 대한 해석도 있지마는 글자의 뜻맞춤일 뿐이다.

---

18) 주역 文言傳

19) 朱子大全 朱熹(1130~1200) 南宋代

후송(後宋)의 주돈이(周敦頤) 곧 태극도설(太極圖說)의 저자 염계(濂溪)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 성(誠)이란 지극히 참되어 허망함이 없는 것이다.(誠者至實而無妄) 이것은 하늘이 명하는 바를 만물이 받들어 받은 바른 이치다.[20]

성(誠)이 거짓이 없이 실(實)답다고 만물이 이 실다운 천명을 받아 있다는 것을 말한 것 그 원리는 이상에 나오는 다른 문장들의 뜻에 다른 이론이 아니다.

이이(李珥)의 이기론과 관련된 이론이 있지마는 이 또한 훈고(訓詁)적 풍으로 이기(理氣)에 결부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의 한마디 말만 소개하고 다음 신라 때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의 성(誠)에 대한 글을 다음에 옮겨 소개한다.

고운의 행장을 여기 소개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그가 당시의 유불선(儒佛仙) 동양 종교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더욱이 그가 지은 난랑비서(鸞郎碑序)[21]는 중국 종교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풍류도(風流徒)를 현묘지도(玄妙之道)라고 해서 3교를 포섭(包攝)한 종교사상으로 승화시킨 것이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충군 효친(忠君孝親)하는 노(魯)나라 공자의 사상과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諸惡莫作) 모든 선을 봉행하는(衆善奉行)하는 천축(天竺) 석씨(釋氏)의 교법(敎法)에 선(仙)의 연단(煉丹)법을 가한 3교원융론(三敎圓融論)으로서 신라 화랑 수련의 자료가 되게 했다.

계원필경(桂蕙筆耕)의 문집도 있지만 3권 1질로 된 경학대장(經學隊杖)이 있어서 유교 경학의 지침이 되고 있다.

천지(天地)에서 시작하여 안민(安民)까지 137편의 내용인 바 이 가운데 있는 성(誠)편을 초기(抄記)하여 소개한다.

> 성이란 하늘의 길이요, 성(誠)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사물(事物)이 이루어지는데 어긋남이 없고 사물을 생성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이 성(誠)으로 하기 때문이며 그 존재하는 것에 속이는 것이 없

---

20) 通書 周敦頤(1017~1073) 北宋
21) 최치원 지음(857~?)

> 고 그 행하는 것이 허망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성(誠)으로 하기 때문이다.
> 눈을 밝혀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를 기울여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모이면 나타나고 흩어지면 숨어서 사물(事物)이 하나가 되는 것이 빠뜨릴 수 없는 일이다.
> 여기인지 저기인지를 헤아릴 수도 없으니 이것이 성(誠)이 하늘과 같기 때문이다.
> 성인(聖人)은 그 성을 순(純)하게 하며 현인(賢人)은 그 성을 지니고 있으며 범인은 그 성을 버려서 없애는 것이다.
> 성인은 타고난 바탕이 맑고 순수하여 하늘의 이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인(仁)이라면 겉과 속(表裏)이 모두 인(仁)하여 털끝만큼도 인(仁)스럽지 않음이 없고 의(義)라면 겉과 속(表裏)이 모두 의(義)라서 털끝만큼도 의(義)롭지 않음이 없다.[22]

고운(孤雲)은 먼저 중용에 있는 誠者天之道 誠之者人之道(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의 길, 정성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길)[23]이란 말에 입각해서 이론을 펼치고 있다.

고운이 여기에 성(誠)을 들어 논하며 그 전고(典故)로서 위의 예문을 먼저 앞세운 것은 성이 중용의 근본사상이 되어 있어서 천도(天道)로서의 성(誠)과 인도(人道)로서의 성지(誠之)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위의 경학대장(經學隊杖)에서 고운은 하늘의 길을 설명하여 모든 사물이 이루어 생성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 그것이 곧 하늘의 성이라고 하였다. 또 그렇게 발생하고 생성한 것이 그 존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인간의 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성이 나타나서 또 숨어서 작용하되 어디 있는 곳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역시 정신상의 형이상적인 것이라서 추상적이기는 해도 하늘의 길이라는 것보다 더 극명(克明)하게 가르친다.

그리고 유교윤리의 근원이 되는 인의(仁義)가 표리(表裏)없는 진정한 인의가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아무튼 고운의 이러한 사상은 지금부터 17세기전의 이론으로서 어느 종교사상에서도 생각지 못했고 또 어느 개별종교보다도 더 한층 높은 위치에서 제교(諸敎)의 원융 합일에서 우러나는 화랑사상, 풍월사상, 신라사상을 수립

22) 經學隊杖 誠篇 崔致遠 乙酉文化社
23) 中庸 第21章

하려한 것은 사상사적으로 높이 평가 받을 일이라 할 것이다.

5. 타종교 경전(經典)에서 보는 성(誠)

위에서는 일반 동양철학의 문헌 상에서 보는 성(誠)을 발췌(拔萃) 추출(抽出)하였는 바 다음은 그저 한 학문의 문헌이 아니라 종교상 신앙의 요의로서 성(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런 모든 성에 대한 이론이 대순사상에서 총결론을 얻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순사상을 뒤로 미루었다.

모든 종교 경전에는 많든 적든 성(誠)에 대한 교훈이 없는 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조선 말기에 대순진리회보다 6·70년 먼저 창설된 동학 천도교에서는 교인들 수행의 실천방법으로 수심정기(守心正己)와 성·경·신(誠敬信)을 들고 있다. 그 중에도 성경신은 수운(水雲)이 직접 기술한 동경대전(東經大全)에 좌잠(座箴)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시구(詩句)로서 가르치고 있다.

> 座箴
>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 (우리 도가 넓어도 간략하니
> 많은 말과 뜻을 하지 않는다.
> 별다른 도리가 따로 없으니
> 성과 경과 신의 석자 뿐이다.)[24]

말하자면 좌우명(座右銘)의 잠언(箴言)으로서의 덕목으로 설정한 것을 시(詩)의 형태로 작성한 것이다. 그 밖에도 성(誠)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으니 몇구절을 들어둔다.

> 到此用病 則或有差不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則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誠敬耶
> (이렇게 질병에 대처하는 것에 이르러 혹은 차도가 있고 없기 때문에

24) 서문에서 소개함

그 단서를 살펴본 바 그러니 성(誠)하고 또 성하여 하날님께 이른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도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같이 효험이 없으니 이는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25]

道成德之 在誠在人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서는 것은 정성에 있고 사람에게 있다.)[26]

大抵此道心 信爲誠
(대저 이 도심은 믿음이 성(誠)이 된다.)[27]

不知誠之所致 是自知而自怠
(정성이 이른 바를 모르면 이것은 스스로 알면서도 태만한 것이다.)

위의 좌잠(座箴)에서 다른 도리가 별 것 없고 성·경·신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그 세가지 요체 가운데 성을 먼저 꼽았다.

그리고는 성에 또 성할(誠之又誠) 것을 고조하여 성(誠)을 지니며 질병에도 차효가 있고 그보다 차원 높은 도성덕립(道成德立) 곧 도와 덕의 성립을 완수(完修)할 수도 있으니 도심(道心)이란 곧 믿음이 씨가 된 성(誠)으로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한가지 성(誠)에 대한 경훈(警訓)이 있으니 치성(致誠) 곧 지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알긴 하면서도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 용담유사에 있는 가사 가운데 성(誠)에 관련된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지각없는 이것들아 / 남의 수도 본을 받아
성지우성(誠之又誠) 공경해서 / 정심수신(正心修身)하였어라.[28]

도성입덕(道成立德)하는 법은 / 한가지는 정성(精誠)이요 /
한가지는 사람이라[29]

성경(誠敬) 2자 지켜 내어 / 하날님을 공경하면 /
자아시(自兒時) 있던 신명 / 물약자효(勿藥自效) 아닐런가[30]

---

25) 동경대전 布德文
26) 동경대전 修德文
27) 동경대전 偶吟 八節又
28) 용담유사 교훈가
29) 용담유사 교훈가

이 세상 인심으로 / 물욕 제거하여 내어 /
개과천선 되었으니 성경(誠敬) 2자 못지킬가[31]

대저 세상 사람중에 / 정성있는 그 사람은 /
어진 사람 분명하니 / 작심으로 본을 보고 /
정성 공경 없단말가[32]

이 국문으로 쓴 가사들에서도 성을 들어서 말한 많은 교훈이 있어서 참고가 된다.

정심수신(正心修身)하는데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야 하고 도성입덕(道成立德)하는데도 역시 정성임을 알 수 있다.

성경(誠敬) 2자를 굳게 지키면 육체의 오랜 병도 나을 것이니 심신(心身)의 안강을 얻을 것이며 그 성을 지키는 것이 개과천선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게 성(誠)으로 완성된 어진 인격자(仁者)를 본을 삼는 사람들이 정성공경이 있을 것이라는 칭찬의 말씀까지 곁들여 있다.

불교의 경우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경전 가운데 중국·한국적인 사고의 성(誠)이란 어휘가 발견되지 않고 다만 사서(辭書)류에 誠=眞實(성=진실)이라고 해서 진실 곧 참되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이 참되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두가지 개념이 같더라도 아주 다른 개념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眞實을 대신 논할 수는 없다.

그 眞實로서 된 진실성(眞實性), 진실의(義), 진실신(信), 진실행(行), 진실어(語), 진실인(人), 진실체(體), 진심(眞心), 진언(眞言) 등 어휘 가운데 진실, 진실성, 진실행 같은 것은 성과 동의어(同義語)로 간주해도 좋지만 진언(眞言=呪文) 진실체, 진실의 같은 것은 성과 같은 뜻의 진실보다 주체가 되는 다른 명사의 문법상 부사(副詞)의 작용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유대 언어에 성과 같은 개념을 가진 어휘가 없고 다만 진력(盡力)한다는 뜻의 말을 정성으로 번역했던 것을 볼 수 있으니 그 예문

30) 용담유사 도덕가
31) 용담유사 교훈가
32) 용담유사 권학가

을 들어본다.

> 우리 주 하느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33]

희랍어 원문에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여 있는데 아마 윗번역은 중국서된 한문번역 중역(重譯)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아무튼 기독교가 성(誠)의 지성(至誠)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기독교 찬송가에도 나타나있다.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날마다 나아갑니다.
> 내 뜻과 정성 모아서
> 날마다 기도합니다.[34]

여타 종교의 경전에도 성(誠)에 대한 것이 나와 있겠지만 이로써 이 절(節)을 마친다.

Ⅳ. 대순사상의 성(誠)

지성일관(至誠一貫)이란 말이 있고 지성감천(至誠感天)이란 말도 있고 주방의 찬모(饌母)들까지도 음식은 정성을 넣어야 맛이 있다고 해서 지성이니 정성이니 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친근하게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위에 Ⅰ장 Ⅱ장에 서술한 것처럼 과거의 선인(先人)들이 문자와 문장으로 남긴 교설(敎說) 가운데 있는 성(誠)의 본질과 그 작용, 그리고 효용(效用)과 실천방법들에 대한 것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따져보면 대순사상 나아가서 대순의 교의에서 3요체를 설정하고 그 첫머리로서 성(誠)을 앞세우고 있는 대순의 종학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대순의 성(誠) (함께 敬과 信)은 대순의 종학과 대순의 도인들로서

33) 신약성서 마가복음 12장 30~31절
34) 기독교 찬송가의 1절

는 그 귀의(歸依) 신앙하는 바 대순진리회의 도조(道祖) 도주(道主) (신앙상으로는 양위상제로 모시는 증산 구천상제와 정산 옥황상제)의 옥음(玉音)을 통한 교법이 일반 통속적인 성(誠)관념과 다른 차원으로 신심에 부딪치는 것이다.

1. 전경(典經)의 교법에서 보는 성(誠)

그래서 전경(典經)이 교시하는 양위상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음미(吟味)하고 또 연구하는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교법의 진의(眞義)를 알아본다.

天地誠敬信(하늘과 땅이 성·경·신이다.)[35]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성·경·신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하늘 땅의 운도(運度)가 성·경·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하늘과 땅에 성·경·신이 가득하다고도 할 수 있으며 또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 그리고 3극(三極)의 하나인 사람도 기워넣어 天地人誠敬信이라고 해도 같은 뜻일 것 같다.

여기에 문득 미국의 목사, 시인 에메슨(Emerson Ralph. Waldo)[36]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길가에 핀
오랑캐꽃 한송이에도
나는 신의 얼굴을 본다.

이것을 바꾸어 작은 풀잎, 꽃잎 하나에도 천지의 성·경·신을 본다고 해도 노상 망발된 말은 아닐 성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회가 아무리 무성실하고 불신실한 사회라고 해도 우리는 천지의구성이 성·경·신으로 되어 있고 우주 천지는 성·경·신의 진리 가운데서 운행 유지되고 있으며 장차는 정말 성·경·신으로 생활하는

35) 典經 교운 1장 60절
36) 에머슨(1803~1882) : 미국의 사상가, 시인. 저서로는 범신론의 상징주의에 입각한 자연론, 사상적인 시집, 에세이집이 있다.

세계가 될 것을 바라고 또한 믿는다. 이것을 우리는 전경에서 배워 얻는 것이다.

너희들도 지성을 다하여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37]

이제 천지 우주의 큰 것을 주제(主題)의 대지(大旨)로 하고 작은 우주인 인간 또한 지극한 정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교법에서 배우는 것이다.

지성 곧 지극한 정성으로 심성을 수양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신적인 이상과 육체적인 현실에 공용(共用)되는 요체요 진리다.

정성을 다한 신심(信心)과 원력(願力) 그것은 작은 인간 생리의 질서가 아니라 우주대(宇宙大) 무한대(無限大)로 뻗어나가는 천지성경신의 힘(force)과 원동력(energy)이 있는 글자 그대로의 인존(人尊)사상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6억년 전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지구라는 한 행성(行星)에 부유(蜉蝣)같은 homo라는 한 동물이지만 지성으로 정신수련 - 종교수련을 통하여 천지 우주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공부가 곧 대순의 공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제각기 운수를 정하였느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38]

여기에 운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복술자(卜術者)의 미신적인 숙명론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건전한 인간, 더구나 인존사상을 지닌 대순도인들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천지의 도수니 운도니 운수니 하는 말은 철저하게 자연과학이 제시하는 조화(造化)·진화(進化)로 생성, 발전하는 법칙이지 누가 남의 운명을 잘되게 못되게 조종한다는 치졸한 저급종교의 교리와 다르다.

도조 증산도 재세시에 천지도수를 뜯어고쳐 수정을 했다고 해도 누구를 병사나 급사하게 하든지 화를 받게 한 일은 없었다. 그 반면 필요에 따라 자연운행의 도수를 고치든지 지연시키기는 일은 있었으며 많은 병자들을 치

37) 典經 교법 3장 20절
38) 典經 교법 2장 37절

유는 해도 앙화를 내린 일은 없다.

그러니 각자에게 천지와 함께 하는 운도(運度) 운수(運數)는 주었어도 기계인형처럼 그 운수의 태엽에 감기어 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 천지 성·경·신과 함께 하는 운수의 참뜻을 종교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전경에 나타나는 증산의 가르침에서 성(誠)과 거의 같은 뜻으로 말씀한 것도 또한 성의 연구에 참고가 된다.

성을 바르고 곧은(正直) 것으로 보아 다음 예문을 들어본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正直)하게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39]

여기서 동양의 천관(天觀)이나 신관(神觀)을 논할 것까지는 없지만 옛사람의 하늘에 대한 인식은 참으로 절대적인 데가 있었다.

하늘은 지고(至高) 지대(至大)하고 그 하늘이 지니는 성격은 공명정대, 공평무사, 천지의 운도를 좌우하고 우설노상(雨雪露霜)과 함께 화복(禍福)을 내려 주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점차 인격화하여 하늘님, 천주(天主), 천제(天帝) 등으로 호칭한 것이다.

그 하늘을 숭배(崇拜)와 외경(畏敬), 기원(祈願)의 대상이었다. 지금 21세기 DNA의 인간복제나 로봇, 컴퓨터의 기술이 판을 치는 시대상에도 이런 원시종교적인 교의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연민을 불금할 일이 있다.

다행히 대순사상은 이런 자연과학적인 사상(事象)에 대해서 이 우주 운행의 도수를 좌지우지하는 상제를 받들고 그 상제가 허공에 떠있는 가상(假像) 우상(偶像)의 신이 아니라 바로 인신(人身)으로 지구세계에 출현했던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라는데서 가장 합리적인 상제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 바르고 곧은 사람 곧 성(誠)의 인(人)이 되면 하늘이 도로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하니 실로 인존(人尊)의 인간만세를 부를 일이다. 그러니 천존(天尊)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더 높은 존(尊)이 되는 인존시대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

39) 典經 교법 2장 7절

그래서 구천상제 증산은 다음과 같은 성어(聖語)도 내리신다.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제먼저 찾아온다.[40]

이제 그 바른 마음, 참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의 당위(當爲)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을 증산은 이렇게 가르친다.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다. 참마음이라 곧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眞實無僞) 것이 성(誠)인만큼 그 성을 닦는 것보다 지키는 것 곧 수성(守誠)이 복받는 것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이 표현의 복이 제가 먼저 찾아온다는 것도 참으로 상제다운 말씀인 것은 복이란 하늘에서 무상배급으로 누구에게나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닌 것이니 주고 안주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된 마음을 굳게 지니고 행동하면 인과법칙으로 복이 저절로 달려올 것이란 것으로 투기도박적인 요행을 갈구하는 오늘의 사람에게 하나의 경종(警鐘)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참된 마음의 근원이 되는 것을 교시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41]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誠)의 근본이 된다. 기독교 성서에 8복(八福)을 가르친 기독의 말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중국서는 虛心者福矣(마음을 비운 사람이 복이다)라고 번역했는데 모두 이명동곡(異名同曲)으로 뜻을 같이 한다.

한국 불교 천태종(天台宗)에서 의식때마다 외우는 중창조(重創祖)의 법어에 이런 것이 있으니 이 또한 같은 취의의 것이다.

一心常淸淨 處處蓮華開
(한마음 늘 깨끗하면 / 곳곳이 연꽃 피리라)[42]

복이 오는 것과 꽃이 핀다는 결과의 사물(事物)이 다르다고 해도 다만 후

40) 典經 교법 2장 3절
41) 典經 교법 1장 21절
42) 天台宗 대조사 법어

자가 문학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것뿐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교훈은 마찬가지다.

증산은 또 특정인물을 지목하여서도 바른 마음을 깨쳐서 수도할 것을 교시하고 있다.

> 공신에게 너는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도수(度數)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正心)으로 수련하라[43]

종도(從徒) 문공신(文公信)에게 특별하게 교시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보아서 문공신의 부인이 기가 세어서 남편을 이기려하고 종교신앙에 방해를 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기에 정음정양인 여성평등의 도수를 지적하면서 그래도 바른 마음(正心)으로 수련하라고 한 것인 바 여기서 정심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성(誠) 그것이라는 또 추상적인 답을 붙여 둘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정음양과 정심의 상관관계인 것이니 정음양 원리가 현실적인 제도화하는 것이 정심(正心)과 정비례한다고 하면 양존음비(陽尊陰卑)의 봉건적 사고와는 반비례한다. 그 반면 정음정양(여성우위의 女尊男卑적인 것이 아닌 공정, 공평한 정음양)이 정심에 입각하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에 빠지기 쉽다는 기우(杞憂)같은 우려를 붙여둔다.

증산의 이렇게 공평하고 중정(中正) 한 사고가 굳이 음양합덕이라는 말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대순의 종지(宗旨)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지만 이런 사상을 추출(抽出)해서 종지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중요 교리로서 완성시킨 정산(鼎山) 또한 상제의 위호를 넉넉히 받을만한 업적을 후세에 남겨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일로 인식되는 것이다.

2. 간추린 대순사상의 성(誠)

그러면 이 장의 끝으로 위에 나열된 대순사상에서의 성(誠)이 무엇인가를 간추려서 제 I 장에서 대순사상의 성(誠)을 정의(定義)한 것과 어떻게 결합하

43) 典經 공사 2장 16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천지 우주 전체가 성·경·신이라는데서 성에 대한 큰 명제를 얻는다.
- 지성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
- 모든 운수는 성으로서 받는다.
- 성 앞에는 하늘도 두려워한다.
- 성에 복이 찾아온다.
- 성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다.
- 성은 정음정양의 정심(正心)이라야 한다.

는 것들로 요약된다.

본고에서 성의 정의로서

첫째 공경하는 마음

둘째 진실한 마음

셋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규정한 것과 위에 산발적으로 된 이론을 귀결(歸結)시키면 다음과 같은 일람표가 성립된다.

1. 공경하는 마음
   - 천지가 성(誠)이다
   - 정음양의 정심이다
2. 진실한 마음
   - 지성의 마음
   - 성은 하늘도 두려워한다
3. 한결같은 마음
   - 성은 깨끗하다
   - 지성의 마음
4. 성의 공효
   - 무슨 일이든지 이룬다
   - 모든 운수를 받는다
   - 복이 찾아 온다

이상은 필자가 수집해서 요약한 것뿐인 사안(私案)으로 계속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V. 역사상 인물에게서 보는 성(誠)

성(誠)은 하늘의 길이요 성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라고 중용과 맹자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정성된 사고와 행동을 하여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진실된 성심이 있는 동시에 거짓된 마음씨가 함께 있어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고 또 오늘날 같은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곧잘 마음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을 수긍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론과 말로서의 성(誠)을 논하기보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성(忠誠)과 인간사회를 위한 정성(精誠) 또 거짓없는 성심, 성의로 일생을 살다간 이들을 찾아 그들이 어떻게 성지인(誠之人)으로 살았던가를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할 것 같아서 몇분을 가려서 고찰해 본다.

5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에서 허다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거짓없이 오직 진실된 성(誠)으로 국가 민족을 위한 인물 몇분을 가리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과거 변객(辯客)이며 문인, 그리고 정치가였던 쓰루미 유스께(鶴見祐輔)가 지은 영웅대망론(英雄待望論)에 보면 세계의 위인과 영웅이 허다하지만 거짓없고 사술(詐術)없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둘(二人)밖에 없었다고 하며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영국의수상 글래드 스톤 두사람 뿐이고 모두는 많고 적고간에 수단과 방편의 거짓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거짓없이 성실한 인물을 가려보니 그것도 쉽잖은 일이었다. 나대로 몇분을 골라서 논의하는데 소홀을 서량하기 바랄뿐이다.

1. 세종(世宗) 대왕의 성(誠)[44]

역대 제왕 가운데서 성(誠)의 인물 한분을 들라면 조선조 4대 세종대왕을 들고 싶다.

세종의 국가와 민족에 끼친 많은 업적을 두고서의 기준보다 그가 제왕으

44) 人物로 본 한국사 세종편, 중앙일보사

로서보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지성의 인물이었던 것에 감복하는 것이다.

인품과 재능이 뛰어나서 형들인 양녕(讓寧) 효녕(孝寧)을 제쳐두고 세자로 책봉한 것부터가 그의 자질(資質)을 말해주고 있지마는 임금이 된 후의 치적이 놀랄만 했다.

함경도 지방의 여진족을 제압하고 6진(六鎭)을 설치한 일 평안도에 4군(四郡)을 두고 이민을 시킨다든지한 거기에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등 혁혁한 정치, 군사, 외교가 있었다. 비록 명장(名將)과 현신(賢臣)이 있어서 된 일이지만 국가원수의 자질과 정성이 선행되지 않고는 안될 일이다.

농업의 개량과 발전을 위한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의 설치 농사직설(農事直設)의 간행, 과학을 발전시킨 대소간의(大小簡儀) 혼천의(渾天儀)등의 제작과 역서(曆書)와 천문도(天文圖)를 만들기도 하였다.

인문과학부문에도 고려사, 8도지리지, 삼강행실도, 의방유취, 치병요람(治病要覽)등 전문서적을 간행하였다.

그 가운데도 인쇄술의 개량과 측우기(測雨器)의 제작등 역대 제왕이 따르지 못한 혁혁한 치적을 남겼다.

여기에 대서특필할 훈민정음의 제자(題字) 제정(制定)의 일대사(一大事)가 있었으니, 이로써 민족 문화대계의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외국문자의 잉용(仍用)이나 변개(變改)가 아닌 문자 그대로인 신제 28자(新製二十八字)를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낮에 정무(政務)로 분망하여 야간작업으로 완성한 정음의 천구(穿究) 때문에 안질까지 생기어 청주(淸州) 초정(椒井)에 행행(行幸)하여 요치(療治)하기까지 하신 그 정성의 성(誠)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나마 보고 느끼고 기리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다.

일반 서민이라도 이렇게까지 못할 일인데 만승(萬乘)의 고귀한 신분으로 이러한 지성(至誠)을 보이신 것이 만고의 귀감(歸勘)이 아닐 수 없다.

2. 곽망우당(郭忘憂堂)의 성(誠)[45]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났던 임진왜란(壬辰倭亂)은 뒤에 북에서 내려온 병자호란(丙子胡亂)과 함께 민족사에 잊지못할 대전란이었다.

부산을 함락한 왜군이 세길로 나눠 조선의 수도 서울을 향해 북상해서 20여일만에 서울은 물론 평양과 함경도가 점령을 당하고 말았으니 국방 안보가 허술한게 아니라 전무의 상태에서 이런 무인지경과 같은 허점(虛點)을 보이며 국가존망의 추(秋=때)에 바다의 성웅(聖雄) 이순신(李舜臣) 육지의 신장(神將) 곽재우(郭再祐) 같은 충절(忠節) 단성(丹誠)의 인물들이 있었기에 한민족 5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다.

경남 의령(宜寧) 출신인 그는 반가의 후예로서 남명(南溟) 조식(曺植)의 문인이 되어 학업을 닦았다. 정시(庭試文科)에 을과(乙科)급제를 했으나 문장중에 임금의 뜻에 거슬리는 데가 있어 취소를 당한다.

그후 과거를 보지않고 있었는데 선조 18년 왜란이 일어나자 비록 선비의 몸이지만 자기집 노비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왜군에게 대항하는 의병(義兵)을 일으켜 몸소 붉은 장삼을 입고 싸움에 응하니 왜군이 있는 곳에 높은 곳에서 날 듯이 내려와 토벌을 하여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고 불리게 되어 오늘까지 전한다.

그런데 이 홍의장군 망우당은 싸워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하며 전쟁이 종식된 후 65세에 서거(逝去)했는데 선비의 체질치고는 강건했고 또 성격도 활달했다고 한다.

전쟁 중에는 도적이라는 모함이 있어서 왜군과 관의 체포령의 양면공세를 받다가 잡히어 옥에 갇히었으나 무죄하기 보다 유공한 것이 드러나서 석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찰방(察訪)직에서부터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임명된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되어서는 경상좌도방어사(慶尙左道防禦使)가 되어 창녕(昌寧)의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지켰는데 계모상을 만나 울진서 3년상을 지키는 효성(孝誠)을 다했다. 후에 진주목사겸 경상우도조방장이 되었는데 광해조가 되어 영창(永昌)대군의 일로 상소를 올렸다가 영암(灵岩)으로 유배

45) 위의 책 곽재우 편

를 당한다.

귀양이 풀리고 다시 몇차례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官)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등 관직이 내렸지만 그때마다 사양하고 국정쇄신을 건의하는 상소만 올렸다. 그것은 노후에 하나의 선비로서 독서와 시서(詩書)에 묻혀 노서생(老書生)으로 마친 그의 일생이 성(誠)을 지닌 곧고 굳은 사대부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광해군 9년에 그가 사세(辭世)하자 조정에서 충익사(忠翼祠)를 세웠으며 숙종(肅宗)조에 와서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의 관직을 추서(追敍)하였다. 그는 문인적으로 웅건한 필체의 서예에 능했으며 시문(詩文)도 출중해서 망우당집(忘憂堂集)이라는 사조집(詞藻集)이 전해오고 있다. 시호(諡號)를 충익공이라 했다.

그의 행적에서 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후인이 배울 바가 많이 있지마는 여기서 우리는 지성의 충·효 그리고 바르고 곧은(正直) 진실된 삶이니 그의 지성인(至誠人)다운 면을 하나씩 들어 정리해 본다.

양반자제면서도 이웃사람이나 노비들에게 구별없이 담화하고 술잔을 나누었다는 평등정신 그리고 정성어린 애정,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고을 사람들이 우리는 홍의장군이 없으면 못산다고 관에 호소하였다.

그는 관군의 장군이 아니라 의용군의 대장이었으니 그의 정성어린 애국심을 알 수 있다.

전쟁은 이겨야 하는 것, 죽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망우당은 전투마다 싸워 이겼고 또 전사한 장군이 아니었다.

전투중에 얻은 적의 수급(首級:머리)을 군졸들이 조정에서 하나에 얼마씩의 상을 주는 것을 타려고 모으고 있을 때 우리가 상금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며 3천 여급(級)을 모두 낙동강에 던지게 한 지순 지고한 지성의 호국정신이었다.

조정의 상당한 요직을 거푸 거푸 임명해도 모두다 거부하고 초야에 늙은 선비로서 생을 마친 맑고 곧은 성심(誠心)이며 마지막 자기의 본분인 선비의 길에 돌아가서 무인으로서의 생활은 국가 안위를 위한 일이요 자신은 영원한 문인으로 남고자한 지성(至誠)의 인(人)이었던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

다.

3. 백범(白凡) 김구(金九)의 성(誠)[46]

해방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한 어떤 분의 입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인들과 싸우고 또 어떻게 지조(志操)를 지켜나갔다고 칭찬을 해도 진실로 티하나 없는 순수한 애국심과 한결같은 지성으로 애국일로(愛國一路)의 정성을 다한 이는 백범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한 것이었다.

'내게 누가 네 평생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조선의 독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소원은 무어냐고 물으면 역시 조선의 독립이다.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한 뜻의 말씀을 한 것으로도 그는 나쁘게 말해서 우직(愚直)하고 완고(頑固)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조국은 그의 신앙대상이었고 독립운동은 그의 종교생활이었다. 백범뿐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도 그런이가 많았지만 종교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기관이었을 뿐이었으니 불교적으로 말하면 방편(方便)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생시에도 독립, 꿈에도 독립, 돌아간 다음 지금도 완전자주통일독립을 염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8세때 동학(東學)에 들어가 해주 아문(衙門)의 탐관오리를 추방하려다 실패한 때부터 안두희의 총알에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직업이 독립운동이고 취미가 독립운동이고 생활이 독립운동이었다.

그가 대한제국때의 명성황후를 살해한 왜인들에게 복수한다고 일군 대위 쓰찌다(土田))를 죽인 다음 체포 투옥되어 사형집행의 직전에 고종황제(高宗皇帝)의 특지로 목숨을 건진 다음 그때 아주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생사관에 입각하여 남이 보면 정치수완도 없고 외교수완도 없고 인정 사정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상해서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한 그의 말은 입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심성(心誠)에서 우러나온 자동(自動)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

46) 위의 책 金九편

그러나 그는 48세에 내무총장 52세때 국무령(國務領-대통령)을 맡아서 일했지만 나중에는 가위 혼자서 간판을 떠매고(그것도 국기도 간판을 못부치고) 혼자 말에 있다가 새벽이면 사라지는 중국 옷의 노인, 그가 바로 임시정부를 중경(重慶)까지 끌고 갔으니 백범을 누구 어떤 이들과 비교해서 잘났다 못났다하는 말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봉창(李奉昌)의사의 일왕(日王) 저격사건, 윤봉길(尹奉吉)의사의 홍구공원(虹口公園)사건으로 한국의 정의감(正義感)을 중국대륙이 감동하게 된 것은 임시정부라는 기관과 그 주재자 백범이 있었기에 이룬 의혈극(義血劇)이었던 것이다.

통일조국 자주독립을 갈구한 나머지 북한으로 찾아간 백범의 옹고집 같은 지성(至誠)도 이질(異質)의 주의 사상에는 먹혀들지 않았고 남녘에서조차 장애자로 돌리어서 마수(魔手)의 앞에 운명한 그의 성혈(誠血)이 그냥 헛되이 쏟은 피가 아닐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이 소원인 그의 지성이 오늘도 남북 강산에 울리고 있다.

비록 종교적인 성(誠)과는 그 류(類)가 같지 않다 해도 성(誠)을 지향하는 종교인들이 배움직하다 하는 바이다.

4. 아브라함 링컨의 성(誠)[47]

위에 잠깐 말했지만 일본의 쓰루미(鶴見祐輔)가 거짓이 없던 유일한 정치가로 규정한 북미합중국 제16대 대통령이던 링컨을 오늘도 세계인이 존숭(尊崇)하는 바가 '정직 애브'라고 애칭(愛稱)하던 그의 바르고 곧은(正直) 성(誠)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의 인물을 소개하다가 이 미국인 한분을 소개해 논의하는 것도 노상 의의가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링컨은 노예해방이란 가장 인도적이고 인간적인 사상(史上) 큰 일을 성공시켰으며 평생 거짓말 한마디 안하고 살았다는(그것이 대통령이란 정치 행정의 최고위에 있으

47) 세계대백과사전 참고

면서도)데서 그가 모든 백색인을 대표하는 성(誠)의 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등장시킨 것이다.

그는 미국 켄터키주의 빈곤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교육은 받아보지 못한 고난 속에서 성장했다. 품팔이 노동자로 군대 졸병으로 창고지기의 용인으로 배의 선원으로 전전한 청소년기의 경력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잡화상, 측량기사를 하고 시골 우체국장도 하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얻은 신용으로 일리노이주의 주의원이 되니 이것이 하나의 등용문이 되었다. 그러나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정신으로 밤잠 안자고 법률공부를 시작해서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따낸다. 친구 변호사와 합동으로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때의 일화를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여도 변호를 맡지 않으니 링컨이 변호를 맡는 사건은 맡기는 사람도 안심했고 판사도 안심하고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으리만큼 신용과 신뢰를 얻었다.

이때도 나이 30미만으로 정치에는 무관하고 있었는데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 더글러스란 사람이 노예문제로 당자가 관여해서 정한 미주리협정에 위배되게 노예를 취급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링컨이 더글러스와 맞서서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노예문제로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이 유명한 '링컨 · 더글러스 논쟁'이라고 하여 지금도 전해진다.

그 선거전에서는 더글러스에게 졌지만 전미국에 링컨의 정치자질이 선전되어 그 이듬해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대운(大運)의 요행을 얻게 된다. 말 그대로 지성이면 감천(感天)인 것 같았다. 그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란 명언(名言)을 통하여 세계인의 민주주의의 강령처럼이나 되어있는 것도 링컨의 우수한 천재적 두뇌를 입증하고 있다.

남부의 노예정책 반대지역의 반발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후 링컨의 정성있는 변설로 몇 개주는 북군에 가담했는데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이 실증되어 남군의 총 사령관인 명장 리(Lee)장군도 링컨에게 항복하게 된다.

그때도 링컨은 상대의 명예를 존경해주며 남북이 함께 승리한 것이지 북이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대인군자다운 성실한 태도를 보여 피차간 구적(仇敵)시 하지않고 하나의 미국을 재건하는데 힘쓰게 된

것도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다.

전후에 대통령에 재선되어 국가재건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남부출신의 연극배우가 쏜 권총이 성자같은 링컨의 삶을 끝나게 하였다. 이때 나이 56, 국가 인민과 자신에게 대해 지성(至誠) 극성(極誠)의 인(人) 링컨의 그 성(誠)을 간추려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당시 하나의 축생(畜生)처럼 하나의 재산처럼 생각하던 흑인에게 동등한 인권의 인존사상으로 자유와 평등을 찾아 주려고 어려운 전쟁을 묘한 전략(戰略)으로 승리한 것도 지성의 소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어린 소녀 하나에게 대국의 대통령이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바쁜 공무중에 시간을 내어서 찾는다든지 한 일도 참 인간이 지닌 성(誠)의 발로이다.

그보다도 시골서 와서 길을 잃고 헤매는 소녀를 친히 길을 찾아주는데 시간을 빼기면서도 시골아이에게 소원이 있거든 말하면 들어주마고 하니 링컨 대통령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건 걱정할 것 없이 다른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건 그렇고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기에 내가 링컨이라 했는데 그 애가 깜짝 놀라면서 아저씨가 정말 대통령이세요? 나는 더 얼굴이 잘난 아저씬줄 알았는데…했다. 좋아서 달려들어 볼에 키스를 하니 수염이 너무 많아서 거칠었다. 그래서 키스를 못하겠으니 수염을 깎든지 기르든지 해달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

링컨은 그 욕심없이 순수한 소녀의 말에 감동하였고 그애와의 약속을 어길수 없어 수염을 깎았다가 다시 길렀는데 아랫수염 없는 링컨의 사진이 그때 것이라고 하리만큼 성실한 인물이었다.

위에서 소개한 한국인물 3인, 미국 1인에게서 공통된 성(誠)적 성격을 추출(抽出)해 보면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격이 순수 소박하여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다듬어 삼가는 겸손하다. 말하자면 공경심(恭敬心)의 경(敬)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상과 같아서 자기 주관의 독단, 독재가 없는 것이다.

둘째는 사서(辭書)에 무위(無僞), 진실(眞實)이란 말 그대로 참되고 바른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하고 그 배포(排布)와 경륜(經綸)이 훌륭하다 하여도 거짓과 방편으로 일관되었다고 하면 성공한 정치가나

경제인은 된다고 해도 성(誠)의 인(人)은 아니다.

셋째는 한결같은 마음 곧 한마음(一心)의 소유자들이었다. 그 마음이 국가 민족을 위한 성(誠)이든지 사회개량을 위한 성이든지 학문을 위하든지 예술이나 체육을 위한 것을 불문하고 한결같은 그 마음이 곧 성(誠)의 마음이다.

제Ⅱ장에서 감히 성의 정의를 경(敬)과 진실과 일심으로 규정한 것이 과히 틀리지 않았다고 자위(自慰)한다.

Ⅵ. 21세기와 성(誠)사상

21세기의 새세기와 또 동시에 새천년의 신기원을 축하하는 행사가 세계 도처에 호화 찬라한게 또 의미깊게 거행되었다.

현재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 통신의 글로벌 시대가 되었는데 해를 더할수록 인류사회는 오늘의 사람이 상상 못할 정도로 정말 글자 그대로의 세상이 전개될 것만 같다.

새세기의 기쁨인 동시에 영광인 역사가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 뒤쳐서보면 도로 그 반대의 우려가 우리에게 습래(襲來)한다. 그것은 너무 현실의 이(利)만을 추구하는 과학지상 기계만능의 사상이 지구에 미만(彌漫)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에서 오는 지구의 위기(오존층의 구멍이 문제된 것도 이에 오래인데 지금 몇해 후에는 수자원(水資源)의 고갈이 있다는 등)를 우리는 신변에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후퇴, 더 나아가서는 인류 5천년의 기성문화가 총파괴되는 정신개벽 아닌 과학개벽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만 같이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에 처한 우리는 새밀레니엄과 새세기를 맞은 소망의 기쁨 그 가운데는 가시적(可視的)물질문명의 확대 향상과 함께하는 정신문화의 재건 개조가 없어서는 새세기가 영광의 시기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세기의 대병(大病) 소병(小病)을 치유할 방문(方文)이 성(誠)이외에는 없고 성·경·신을 고조하는 대순사상이 그 주역을 맡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 만물의 근본인 성(誠)

위에서 누누히 말한 것이지만 중용(中庸)과 맹자(孟子)에서 하늘의 도(道)가 성(誠)이라고 한 것은 오늘의 21세기 인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명제인 것이다.

주역계사에서 한 음(陰)과 한 양(陽)을 도(道)라 이른다(一陰一陽之謂道)고 한 말과 견주어 생각하면 음과 양의 도가 총론(總論)적이라면 성(誠)이 하늘의 도라고 한 것은 각론(各論)의 첫머리가 된다고 보리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거기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용에 있는 말처럼

> 「성은 저대로 이루었으며 도가 스스로 도가 되니 성은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 성이 아니면 사물이 없다.(誠者自誠也 而道自道也 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48]

고 해서 성(誠)이 만물의 생성요소인 것을 말해 왔다.(종시(終始)나 시종이나 같은 말로 생물의 일생 물질의 생멸(生滅)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모든 사물, 나무든 꽃이든 곡식이든 또 짐승이든 새나 나비 고기 벌레 집이나 책상이나 기계나 또 정치나 경제나 학문이다 예술 체육 그 밖의 모든 사물에 하늘의 정성, 땅의 정성 사람의 정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 오늘의 모든 문명과 문화가 성(誠)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으니 한사람의 국회의원도 가족은 물론 모든 유권자의 정성이 만들어 낸 것이라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아무리 오늘의 인터넷의 정보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성(誠)으로서 운영될 때 인류에게 이익(利益)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성이 빠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할

48) 중용 25장. 번역을 제2장에 소개한 것과 조금 다르게 했다. 그러나 뜻이 달라진 것은 없다.

수 없다.

성이 없는 사물 삼풍빌딩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다시 성의 교훈 성(誠)이 없으면 물건도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교시하고 있다.

2. 인격완성의 요체(要諦)

21세기를 말하고 국가와 세계를 말하지만 그 첫단계는 우리 개개인의 자아 곧 ego인 것이다. 그 자아라는 하나의 homo sapiens가 천상 천하에 제일 높아서 천존보다 지존보다 인존이 더 높은 인존시대의 도래를 대순사상은 교시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사서의 대학이 말하는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라는 계제(階梯)가 바로 그것이니 한나라의 평안과 세계 천하의 평화가 한사람 한사람의 몸과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하(大河)를 이루고 모래알 하나하나가 태산을 이룰 수 있듯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국가요 세계인 것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 내가 길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것이 대단한 일같잖지만 그것을 외국사람이 보았을 때 한국인은 함부로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민족이요 그런 국가라고 인식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 하나하나가 인격도야에 힘쓰는 것은 개인의 수양이나 더 높은 수도가 지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격파괴된 인간들의 세계라고 하면 그것은 인격이기를 인식 못하는 로봇의 세계보다 더 해독을 퍼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에 성(誠)으로서 서로를 존경하고 자제할 줄 아는 인격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들이 소용되는 것이다. 5년 후에는 우리가 쓰는 물이 부족할 거란 소식이 전해진다. 물 한방울 아껴쓰고 쌀 한톨 아끼는 정성스러운 인간들은 새세기는 요구한다. 거기에 부응하는 인간 하나하나의 성(誠) 그것이 지구재건의 원동력이 될 것이니 정성의 성, 지성의 성, 성실의 성으로 인

류인(人類人)하나하나가 인격완성하는 21세기가 되어야 하겠다.

3. 가정생활의 요소

가정이라고 하면 음양합덕의 현실적 표현인 남과 여의 결합인 부부가 먼저 등장한다. 흔히들 이성(二姓)의 결합이 사랑이니 하지마는 성애(性愛)를 기준하는 사랑이라면(소위 희랍어의 eros) 이것은 하급 동물적 본능애일 뿐, 정신애의 사랑(희랍어 acape)과 함께 복합된 사랑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양류의 사고는 결혼이란 정성된 믿음(誠信)이 앞선 사랑이라야 한다고 생각하니 21세기의 사람들이 정성된 믿음과 정성된 사랑(誠愛)로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서는 이즈음 결혼을 거부하는 사상이 젊은이들 사이에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한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이란 법률적 형식은 취하잖고 부담없이 동거생활을 하며 공식(共食) 동침(同寢)에 자녀생산까지 하는 그것도 독신주의라고 하는 모양이다.(이런 상태를 3월 22일 위성방송에서 보았다.)

수십년 전 시험결혼이라고 해서 어느 기간 동거, 결혼하는 양식이 유행했던 미국인이 이제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거해서 5년 동거니 7년 동거니 하고들 있다.

이것도 굳이 기성관념의 가정은 아니라고 해도 준(準)가정이라고 할지 조건부 가정이라고 할지 모를 일이다.

아무튼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가정으로 포함시켜서 가정생활의 정성된 영위(營爲)를 하게 되기를 진실로 희망해 마지 않는다.

더구나 횡적(橫的) 구성으로만 생활하는 서구인들보다 종적(縱的)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동양인, 그 가운데서도 한국인인 우리가정에 다시금 정성스러운 구조와 생활이 더 살아날 것을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라 믿는 바이다.

조부모,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자매·숙질·종반간 그리고 친척(親戚)·외척(外戚)·인척(姻戚)간에 까지 미치는 인간적인 성(誠) 그것이 민족관념의 근본이 되고 민족의 형성, 발전에 에네르기가 될 것이 새세계 인류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4. 사회안정의 실천방안(方案)

성(誠)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회안정의 요소가 되는 바, 이것이 21세기 세계인류에게 보급되기를 바라는 바 크다.

길에 나서면 사람이고 건물에 들어가도 사람인데 그것이 날로 달로 점점 늘어가니 우리의 사회생활의 폭이 또한 점점 넓어진다.

그러나 사회는 넓어지는데 인간의 참된 모습인 성(誠)은 점점 줄어들고만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만나는 사람마다의 회화가 거짓말과 농담, 욕지꺼리가 90%가 되고 참되고 정성된 말은 10%도 안되는 것만 같다. 언어뿐 아니고 태도, 동작 어느 하나에 정성 들어 있는 구석이 없다.

새세기의 새시민다운 태도로 성(誠)의 정신이 되살아나야만 개혁과 재건이 될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신문제와 함께 현실면에서도 사회생활은 점점 더 불완전할 것이다.

참으로 앞을 내어다 보면 막막한 감이 없지않다. IMF의 영향을 최소한 10년으로 본다고 하면 경제재건도 바쁜 일이지만 성(誠)없이 지은 빌딩과 교량, 터널의 수명도 걱정이며 수도관 가스관등도 걱정이다.

거기에 살인, 강간, 강도, 절도등의 횡행으로 밤은 차치하고 대낮의 출입이 겁이 나는 것이 요즈음 세상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들이 아직은 절정(絶頂)이 아닌 것 같다.

그도 그런 것이 남들이 2백년 3백년에 구축한 산업과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의회정치 교육기관 문화시설(복지문제는 논급한 형편도 아니고)등을 우리는 불과 수30년에 날림공사로 블록집 짓듯이 해놨으니 어디 견뎌낼 도리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백주에 기관총을 들고, 열차에 대어드는 대규모 강도단이 미국영화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라고 하면 지나친 과장이라고 나무라지 만은 못할 것이다. 그런 흉역을 다 치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우뿐일까.

부정이니 비리(非理)니 사기니 협잡 아니하고 절도질에도 날치기, 들치기, 소매치기, 오토바이치기, 자동차치기로 발전하는 오늘의 도적들의 패러다임

도 다채다양하다.

소위 예술을 한다는 여배우 텔런트가 한 남자를 상대해서 자기친구와 셋이서 종야(終夜) 수차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수기로 내어도 본인도 뻔뻔하고 그런 인비인(人非人)을 상대해서 TV프로에 등장시켜서 남의 집 안방에까지 보여주는 이런 사회가 갑자기 안정이니 하는 것이 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밖에 될 것이 없다.

여기서 이런 등속의 말을 늘여 놓는 것이 도로 논문의 품격만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이런 일을 보고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안정된 사회가 되는데는 지금의 몇배 더한 어두운 면과 혼잡된 경우가 닥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며 자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포악(暴惡)하고 추악(醜惡)하고 혼탁(混濁)한 사회의 정화 안정이 낙동강, 한강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도 모두는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그리고 교합하는 것 등에만 기울어지고 있는 이 세기초의 현실에 대순사상에서 고조하는 성(誠)이 지닌 위력을 재인식하고 이의 실천에 성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5. 국가발전의 지표(指標)

지금 이 글을 쓰는 때는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때여서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나 정견발표를 들으면서 역시 옛사람들이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을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또 글자 그대로의 난장(亂場)인 모양이다. 그래서 정치계가 모두 난장판이 되니 나라 전체가 난장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참으로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뿐 도로 무감각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비애국자라고 욕을 먹어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과도기의 통과의례다. 영원히 서구식 민주주의는 쉽사리 안될 동양의 체질에서 참으로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난지난(難之難)의 일일 것 같다. 그것은 신라의 6촌(村) 회의같은 화백(和白)제도의 성·경

(誠敬)의 정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인권(人權)의 주장과 횡적(橫的) 구조 조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의 염치 사양심이 앞서는 성과 경의 동양적 정치방식이 기본이 되지 않고 현재 시도하고 있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완전 정착되자고 하면 금후 한세기는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해 본다.

새롭게 별다른 정치방식이 없으면 오늘의 대의정치가 비록 무슨 쇼도 같고 패싸움도 같고 남 헐뜯기 대회도 같은 것이 의젓하고 점잖은 강연회가 되고 장기(長技)자랑의 정견이 발표되고(거짓말 나열의 공약아닌) 상대방의 흉이 아니라 칭찬을 해주는 그런 성과 경의 경연대회 같은 선거운동은 있을 수 없을까 하나의 공상같은 것을 그려본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나는 이러이러하게 훌륭한 사람이요 내가 무엇이 되면 뭘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고 자화자찬(自畵自讚)의 몰염치한 소리보다 나는 아니다,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는 후보를 억지로라도 뽑아 올려 진정한 대변인이 되고 복무원(僕務員)이 되도록 할 성과 경의 정치가 살아 나올수 있으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역시 비현실적인 이상적 발상일 뿐 오늘의 소위 민주주의란 형태 이것이라도 구미각국처럼 좀 반듯한 선거를 통한 반듯한 정치를 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니 거기에 성(誠)이 절대 요체가 되는 것이다.

국가 발전이란 갖가지 부문에 발전해야 되겠지만 새세기 새시대에는 그 발동기관인 입법부의 성과 경과 신이 근저에 있는 굳건한 구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6. 신세계 건설의 진리

신세계 건설의 진리로서 성(誠)이 요구된다는 말을 이 장(章)의 마지막이 제시한다.

그의 청사진과 같은 전경 중에 증산이 설한 후천세계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기로 한다.

>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威武)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調化)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化權)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怨鬱)과 탐음(貪淫)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不老不死)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三災)가 없어져서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지상선경(地上仙境)으로 화(化)하리라.[49]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설계도와 같은 후천 5만년 선경세계를 구천상제인 증산이 도수(度數)를 개정(改訂)하는 공사(公事)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가 지구상에 이룩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들 범상한 머리로서는 여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비과학적인 면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증산이 상제의 신격 존재로서 예시(豫示) 예언(豫言)한 그 정신과 또 그 속에 있는 이상을 우리가 새겨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가지 위무(威武)와 형벌이 없는 세상 그러니 온 인류인이 평화의 정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엄의 권위주의도 소용없고 무인(武人)의 군대조직도 필요가 없다. 거기에 위법자(違法者) 범죄자(犯罪者)가 없으니 형벌을 주는 제도나 그런 기관 곧 사법부(司法府)가 존재할 가치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 양상이 아닌가. 또한 이러한 이상으로 1세기전 당시 한국인들의 소원을 엿볼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 말고도 조선말 당시의 천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천래(天來)의 복음(福音)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으니[50]

> 후천에는 약한 자가 도움을 받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깎이리라[51]

강한 자가 약해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약한 자가 강하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민중의 이상, 억압받는 자의 포원(抱願)이 모두 신원(伸願) 교정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49) 典經 예시 81절
50) 典經 교법 2장 11절
51) 典經 교법 2장 40절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소원인 정음정양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다.

> 후천에서는…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니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관습이 무너지리라.[52]

이상 전경에 나타난 후천세계상은 1세기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설계도라고 할 것이니 그 후 많은 국난을 겪고 과학적인 신문명 속에 일본은 물론이고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생긴 많은 모순과 역현상을 경험한 오늘의 한국인에게는 더 많은 해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보다도 백인들에게 짓눌리던 아프리카 대륙의 살갗 검은 사람들이며 아시아와 태평양의 도서국가들 또 남아메리카의 후진성이 지양되고 정말 문자 그대로인 세계일가의 자유·평등·평화는 21세기라는 100년간으로도 또한 부족할 것 같다.

이것이 오직 대순사상이 이상하는 바의 교의인 종지(宗旨) 신조(信條)가 작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임을 고양하는 동시에 온세계 인류가 성(誠)에 입각하여 신세계를 함께 건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이상세계가 정치의 무슨 방법이나 사상 주의 경제적 발전 문화향상으로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인간대 인간, 민족대 민족, 국가대 국가간의 성(誠)의 진실성이 교감될 때 바로 그것이 지상천국인 5만년 성경세계가 건설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대순사상의 이상이기도 한 동시에 60억 세계인류의 희망일 것이다.

Ⅶ. 결론

대순사상 신조중 요체의 하나인 성(誠)에 대한 논의를 자의(字義)와 문헌(文獻) 또는 역사상 인물을 통해 고찰하였다. 동시에 대순사상의 성(誠)이 어떤 것이며 또 신앙의 실제와 인간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를 찾아보아 21세기의 신세기 신세계에 성(誠)이 어떠한 구실을 할 것인가를 추구해

52) 典經 교법 1장 68절

보았다.

그러나 한가지 꼭 짚어 두고 마칠 것은 옛 사람의 관념 속에 글자가 지니는 개념이 현대의 우리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인간이 생을 영위하게 되는 것 같은 것이다.

→ 心 → 仁 義 禮 智 信 등

天 → 性

→ 身 → 五臟 六腑 命門 三焦 등

그러니 천명(天命)에 의한 것이 인간의 성(性)이고 마음(心)은 성(性)이 정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몸(身)은 육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심(誠心) 성의(誠意)란 마음과 뜻이란 心과 意를 꾸미는 관형어(冠形語)로서 작용하는데 명사어(名詞語)로서도 충성(忠誠) 효성(孝誠) 정성(精誠)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잠시도 떠나서는 되지 않을 것이 성(誠)이니 모든 사물은 성(誠)이 없이 된 것이 없고 성이 없으면 사물도 있을 수 없다고 중용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에게도 먹는 음식이나 달이는 탕약에 정성이 들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고 약이 옳게 안달여진다고 까지 하고 있기에서다.

너무 정성없는 환경 속에서 정성없이 지은 집에 정성없이 만든 음식을 먹고 정성없이 만든 옷을 입고 정성없는 교육과 정성없는 행정 정치 경제 산업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남 원망할 것 없이 스스로의 부끄러움(自愧)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교 수도인은 물론 모든 생활인의 성(誠)이 깃든 생활을 21세기는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東京大典 천도교 중앙총부

庚熙字典 上海印書館

最新漢和大辭典

漢字大典 교육서관

최신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中庸

孟子

周易

宋子大全

通書

孤雲全書 經學隊杖 乙酉文化社

용담유사 천도교총부

기독교 聖經全書 대한성서공회

人物로 본 韓國史 中央日報社

세계대백과사전 태극출판사

천도교요의 천도교 중앙총부

大巡思想論叢 1輯～8輯 大巡思想學術院

甑山思想硏究 1輯～17輯 증산사상연구회

其他